

《개 회 사》
《開 會 辭》

윤 신일
尹 信一

제 3 회 ‘한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엄실행위원회 위원장
第 3 回 「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実行委員会 委員長

開 会 辞



尹 信一

第3回「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実行委員会 委員長
江南大学総長

안녕하십니까。(こんにちは)

本日、日韓両国の協力のもと、高齢者の生活の質を向上させるための努力の一環として、「高齢者福祉における専門性の促進と社会資源の開発－認知症高齢者福祉を中心に－」のテーマで、第3回「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をソウルで開催できますことを非常にうれしく思います。このシンポジウムのためにご尽力された財団法人ユニバーサル財団と社会福祉法人こころの家族、そして韓国社会福祉法人共生福祉財団をはじめ、関係者の皆様に心より感謝申し上げます。

特に公私ご多忙のなか、お祝いのためにこの席にお越しいただきました金槿泰保健福祉部長官に、シンポジウム実行委員会を代表しまして 深甚なる感謝を申し上げます。

また、このシンポジウムのために物心両面で積極的なご支援・ご協力をくださった財団法人ユニバーサル財団の伊藤勲理事長、および祝辞をいただく李潤求前大韓赤十字社総裁、記念講演をしていただく三星文化財団の韓龍外社長、主題講演をしていただく大正大学の橋本泰子教授をはじめ、発表者の皆様に感謝申し上げます。また総合討論の座長には韓国保健社会研究院客員研究員の朴壽天様、司会にはユニバーサル財団の島村哉明様、こころの家族の田内緑様、平澤大学の金範洙教授、日本 筑紫女学園大学の魯相学教授が労をとって下さり感謝申し上げます。

そして、高齢者福祉に関心をもたれ、このシンポジウムにご参加されるため、遠く日本よりお越しくくださった皆様と、お忙しい中、この会にご参加くださった全ての皆様に歓迎し、心より感謝いたします。

高齢社会を目前にしている我々は新しい挑戦に直面しています。高齢者が人間としての尊厳性を維持しながら幸福な生活を営むことができるよう、多様な福祉サービスの開発とともに専門的で質的なサービスを提供するために努力する時です。このためには一国家の総体的な努力は勿論、国際的な協力が必要です。

世界化、国際化とともに地域化の急激な波の中で、また高齢社会の挑戦を前にし、今や日本と韓国は真の意味での隣国として協力と共生の手をとり合い、共に新しい高齢社会を創造し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これは高齢社会に向けた我々の課題であると考えます。

「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は今年で3度目を迎え、日本と韓国が「調和のある創造的な高齢社会」のビジョンのもと、互いに協力し合い、高齢者が健康で幸福な人生を送れるよう支援するための多様な方法を模索し、実践するために努力して参りました。こうした努力は今後とも続けていきます。そしてこれを通して日本と韓国は未来の高齢社会に向けた福祉ビジョンの実現のため、互いに協力していくことにより、高齢者の生活の質の向上は勿論、共生のための国際協力の福祉モデルを提示し、新しい福祉文化の創出に寄与していくことを期待します。

我々は皆、品位のある穏やかな老年期を過ごせることを願っています。

今、高齢者福祉の増進のために努力することは、すなわち我々の未来を約束することでもあります。

本日、この会が高齢者福祉の増進のため、共に考えることによって効果的な方法を模索し、日韓両国が協力できるパートナーシップを深める場となりますことを願います。どうか最後までご参加いただけ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とともに、皆様に幸せな未来が訪れますことをお祈り申し上げ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カムサハムニダ)

개 회 사



윤 신일

제 3 회 ‘한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엄실행위원회 위원장
강남대학교 총장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과 일본 양국의 협력 하에 고령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고령자복지에 있어서 전문성 제고와 사회자원의 개발 - 치매(인지증) 고령자복지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제 3 회 ‘한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엄을 서울에서 개최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심포지엄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일본의 유니벨재단과 사회복지법인 마음의 가족 그리고 한국의 사회복지법인 공생복지재단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공사다망한 가운데도 축사를 해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본 심포지엄 실행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본 심포지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유니벨 재단의 이토 이사오 이사장님과 축사를 해주실 이윤구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님, 기념강연을 해주실 삼성문화재단의 한용외 사장님, 주제강연을 해주실 일본 다이쇼대학의 하시모토 야스코 교수님을 비롯한 발표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를 맡아 수고해 주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객원연구원 박수천님, 유니벨재단의 시마무라 도시아키님, 마음의 가족의 다우치 미도리님, 평택대학교의 김범수 교수님, 일본 지크시여학원대학의 노상학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령자복지에 관심을 가지시고 본 심포지엄에 참석하시고자 멀리 일본에서 오신 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마음으로부터 감사드립니다.

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령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개발과 더불어 전문적이고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 국가의 총체적인 노력은 물론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세계화, 국제화와 더불어 지역화의 급격한 물결 속에서, 또한 고령사회의 도전 앞에서 이제 한국과 일본은 진정한 이웃으로서 협력과 공생의 손을 잡고 함께 새로운 고령사회를 창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는 고령사회를 향한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엄은 올해로 3 회째를 맞이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조화롭고 창조적인 고령사회’의 비전하에 서로 협력하여 고령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한국과 일본은 미래 고령사회를 향한 복지비전의 실현을 위하여 서로 협력함으로써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공생을 위한 국제협력의 복지모델을 제시하고 새로운 복지문화의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는 품위 있고 편안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령자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은 곧 우리의 미래를 약속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고령자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함께 고민함으로써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한 미래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